



비자 심사 안내

비자 심사 전에 안내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비자 심사 시 주의 사항

1. 본국과의 관계 설명하기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이민을 염두에 두고 지원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비자 심사 시, 영사에게 이민이 목적이 아님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학위 취득 후 미국 체류 의지가 전혀 없음과 귀국 사유를 분명히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역지 (선교지) 복귀, 가족 부양, 또는 자신의 계획이나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도움이 됩니다.

2. 본인이 비자심사에 임하기

비자 심사 시 동반 가족이 아닌, 부모나 친지와 동행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 대상자는 유학할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본인을 대신하여 설명할 경우, 도리어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3. 학위 과정 이해와 본인 사역 설명하기

남부개혁 한국어 과정에서 학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 과정에 대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고 하십시오. (<https://srsem.org/>) 지원하신 학위 과정이 본인의 미래 사역이나 직업에 왜 필요한지를 납득시키지 못 한다면 이민을 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업 내용이 귀국 후 본인의 목회나 선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간단명료

영사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비자심사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주로 1~2분 안에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따라 영사는 당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사에게 주는 첫 인상이 비자심사의 당락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사의 질문에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답하십시오.

5.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준비한 서류들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어떤 서류인지, 영사가 한 눈에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장황한 설명은 신속하게 읽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면접 시간은 최대 2-3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6. 취업

여러분의 유일한 미국 방문 목적은 학업입니다. 취업이 절대 아닙니다. 간혹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학내에서 취업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미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학위 과정을 마친 후, 본인의 귀국 의도를 명확하게 표명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의 배우자가 동반 가족으로서 F-2 비자를 신청할 경우, F-2동반가족은 어떠한 경우든지 미국내에서 절대 취업할 수 없습니다. 혹시 동반 가족이 미국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그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7.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

본국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남아 있을 경우,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비자 신청자가 남아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비자 심사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영사가 판단하기에 남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 미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자 심사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8. 긍정적인 태도 유지

논쟁적인 태도로 심사에 임하지 마십시오. 비자 거절을 당하는 경우, 영사에게 거절의 이유를 서면으로 부탁하시고, 보충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물으십시오.

비자 심사 시 위에 제시된 질문 외에도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하셔서 심사를 잘 마치시고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